

 부산국제금융진흥원	<h1>보도자료</h1>			
	보도	2024. 12. 10.(화)	배포일	2024. 12. 10.(화)
담당부서	금융연구2실	실 장 김수영 (051-631-2760) 팀 장 안남현 (051-631-0282) 매니저 권민경 (051-631-0267)		

부산금융중심지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

- 부산국제금융진흥원(원장 이명호)은 12월 13일(금) 부산국제금융센터(BIFC) 63층에서 「부산금융중심지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전」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
 - 시상식은 수상자(우수상 2팀, 장려상 5팀)에 대한 시상과 소감 발표, 아이디어 소개와 질의응답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

- 부산국제금융진흥원(원장 이명호)은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부산시와 협업하여 「부산금융중심지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전」을 기획함
 - 공모전의 주제는 ① 해양, 파생, 디지털 등 특화금융 발전, ② 부산 금융산업 현안 해결책 제시, ③ 부산금융중심지 발전 로드맵, ④ 기타 부산금융중심지 관련이었으며,
 - 지난 6월부터 시작해 총 31건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상 2점, 장려상 5점, 총 7점의 수상작을 선정

- 이번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는 부산시, 지역대학 교수 등 전문가 5인이 창의성, 적합성, 효과성 등을 고려해 심사하였으며

- 우수상에는 「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라스틱 자발적 거래를 위한 이니셔티브 제안 “Asia - Pacific Plastic Credit Market Initiative (APPCMI)”」과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초기 정착을 위한 핵심상품으로 지식재산권을 제안한 「IP를 이용한 STO 기반의 부산 디지털 금융 중심지 발전 계획」의 2점이 선정
-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수상자에 대해 ▷진흥원 전문가 네트워크 행사 참여, ▷진흥원 주최 교육 신청 시 우대 등의 특전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
 - 우수 사례를 확산·전파하기 위해 수상작을 정책제안집으로 발간하고,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자료로 활용할 계획
-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은 “이번 첫 공모전에 부산은 물론 전국 각지의 대학생·일반인들이 참여해 31건이나 되는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증거”라며, “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힘